

국제 신용평가사 S&P,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

-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건전성 등 긍정 평가 -
-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되었으나, 우수한 수출 경쟁력 보유 -

1. S&P 보도자료 주요 내용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되었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5~'2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8년에는 1인당 GDP가 4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였다.

* '25.3월 발표된 「S&P 아태지역 성장 전망」과 동일,
직전 전망('24.11) 대비 '25년 성장률을 $\Delta 0.8\%p$ 하향 조정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되었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S&P가 제시한 향후 신용등급 상·하방요인

- ▶ (상향요인) ①북한 관련 안보 및 우발 채무 리스크 해소
②북한의 예상치 못한 대폭의 경제적 자유화 추진
- ▶ (하향요인) ①북한 관련 긴장이 경제·재정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정도로 고조
②다른 고소득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성장률 수준으로 저하

재정의 경우, '25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triangle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24년($\triangle 1.0\%$)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25~'26년에는 美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 및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S&P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지난 몇 년간 확대된 비금융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시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

S&P는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 평가 및 대응

S&P는 한국 신용등급(AA, 안정적)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과 美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최상목 부총리와 S&P 연례협의단간 면담을 실시했고,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연례협의를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에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S&P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세부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 링크 및 S&P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 <https://disclosure.spglobal.com/ratings/en/regulatory/article/-/view/type/HTML/id/3352800>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sung126126@korea.kr)



참고 1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Moody's			S&P			Fitch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⑤15.12.18	Aa2	stable	⑤16.08.08	AA	stable	⑤12.09.06	AA-	stable
15.04.10	Aa3	positive	15.09.15	AA-	stable	11.11.07	A+	positive
12.08.27	Aa3	stable	14.09.19	A+	positive	09.09.01	A+	stable
12.04.02	A1	positive	12.09.13	A+	stable	④08.11.09	A+	negative
10.04.14	A1	stable	05.07.27	A	stable	05.10.23	A+	stable
07.07.25	A2	stable	02.07.24	A-	stable	05.09.19	A	positive
06.04.25	A3	positive	01.11.13	BBB+	stable	02.06.27	A	stable
04.06.11	A3	stable	99.11.11	BBB	positive	02.05.13	BBB+	positive
③03.02.11	A3	negative	99.01.25	BBB-	positive	00.03.29	BBB+	-
02.11.15	A3	positive	99.01.04	BB+	positive	99.06.24	BBB	-
02.03.28	A3	stable	98.02.18	BB+	stable	99.04.26	BBB-	positive
01.11.29	Baa2	positive	②97.12.22	B+	negative	99.01.19	BBB-	-
99.12.16	Baa2	stable	97.12.11	BBB-	negative	98.02.03	BB+	positive
99.02.12	Baa3	positive	97.11.25	A-	negative	98.01.21	B-	positive
②97.12.21	Ba1	RUR(-)	②97.10.24	A+	negative	②97.12.23	B-	negative
97.12.10	Baa2	RUR(-)	97.08.06	AA-	negative	97.12.11	BBB-	negative
②97.11.27	A3	stable	95.05.03	AA-	stable	97.11.26	A	-
97.10.27	A1	negative	94.11.09	A+	positive	②97.11.18	A+	-
97.03.07	A1	stable	94.06.09	A+	negative	①96.06.27	AA-	-
90.04.04	A1	-	89.06.26	A+	positive			
①86.11.18	A2	-	①88.10.01	A+	-			

* (Moody's) RUR: Ratings under Review for Upgrade(+) or Downgrade(-)

① 각 신평사가 처음 우리나라에게 등급을 부여한 시기
- (Moody's) '86.11월, A2 (S&P) '88.10월, A+, (Fitch) '96.6월, AA-

② 외환위기 당시 처음으로 등급 하향조정 및 투기 등급 부여
- (S&P) '97.10월, AA-(부정적) → A+(부정적) / (Moody's) '97.12월, Baa3 → Ba1

③ 2003년 北 NPT 탈퇴, SK글로벌 회계부정 사건으로 전망 하향조정
- (Moody's) '03.2월, A3(긍정적) → A3(부정적)

④ 금융위기 당시 전망 하향조정
- (Fitch) '08.11월, A+(안정적) → A+(부정적)

⑤ 2010년대 들어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승후 현재까지 유지
- (Moody's) '15.12월, Aa2 (S&P) '16.8월, AA, (Fitch) '12.9월, AA-

참고 2

주요국¹⁾ 국가신용등급 비교 ('25.4월 현재)

구분	등급 ²⁾	Moody's	S&P	Fitch
투자 등급	AAA (Aaa)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호주, 싱가포르
	AA+ (Aa1)	핀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핀란드, 홍콩, 대만,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AA (Aa2)	한국 ,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한국 , 아부다비, 아일랜드(+), 벨기에, 영국	대만, 아부다비, 마카오, 아일랜드
	AA- (Aa3)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홍콩(-), 마카오(-),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체코, 프랑스(-)	한국 , 영국, 프랑스(-), 벨기에(-), 체코, 홍콩, 아랍에미리트
	A+ (A1)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A (A2)	폴란드, 칠레	칠레,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중국
	A- (A3)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폴란드	스페인(+), 폴란드, 칠레, 포르투갈(+)
	BBB+ (Baa1)	페루, 스페인(+), 태국	이탈리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태국
	BBB (Baa2)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페루(+)
	BBB- (Baa3)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파라과이	인도(+), 그리스(+), 페루	인도, 멕시코, 그리스
투기 등급	BB+ (Ba1)	브라질(+), 모로코,	모로코(+), 베트남, 파라과이(+)	모로코, 파라과이, 베트남
	BB (Ba2)	남아공, 베트남	브라질	브라질
	BB- (Ba3)		남아공(+), 터키	남아공, 터키
	B+ (B1)	피지, 터키(+)	피지, 몽골(+)	몽골
	B (B2)	몽골, 캄보디아		이집트
	B- (B3)		에콰도르(-), 이라크, 이집트, 케냐	이라크, 케냐
	CCC+ (Caa1)	스리랑카, 이라크, 케냐(+), 이집트(+)	모잠비크(-), 파키스탄	스리랑카, 에콰도르, 파키스탄
	CCC (Caa2)	모잠비크, 잠비아, 가나(+),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모잠비크
	CCC- (Caa3)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CC (Ca)	우크라이나		
	C	레바논,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SD/RD		레바논, 잠비아,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가나, 에티오피아	레바논, 잠비아, 우크라이나, 가나, 에티오피아
	D			

1)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 SD(S&P): Selective Default / RD(Fitch): Restricted Default

3) 국가명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등급 전망